

위생적인 식품용기 공급, 정착하는 한해로 삼아

장기적 안목으로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

단순 싸개 개념이었던 1970년대 포장
을 보면 제품의 내용물만이 중시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식품포장은 인간의 인체
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많은 기
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나 기능면, 위생적인 면은 고려되지 않
은 채로 유통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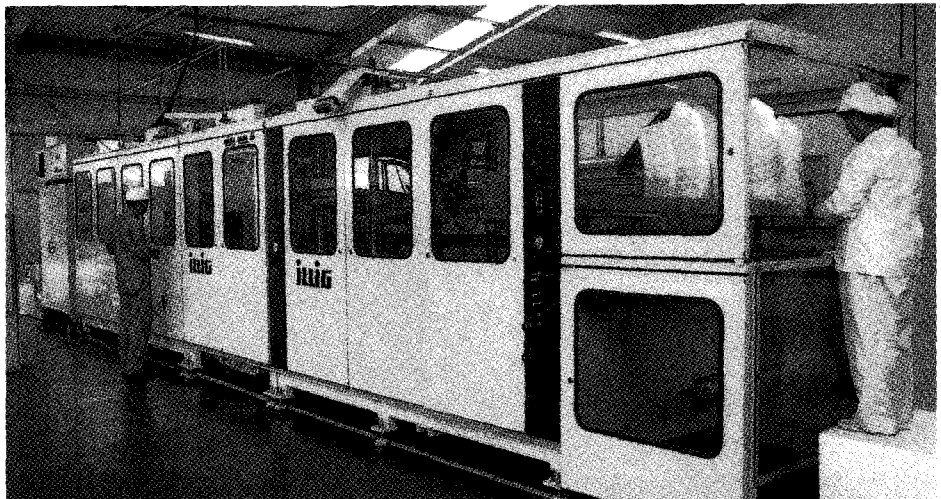
서구의 선진국을, 아니,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
도 식품포장에 대한 세심한 노력으로 산업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많은 수출
고를 올리고 있음은 우리 업계가 주지해야 할 사
실이다.



▲ 대표이사 맹충조

1975년 5월 대전실업으로 설립된 대
건팩케지는 제과포장용기 생산을 시
작으로 태동하였으며 대표인 맹충
조 사장은 일찌기 일본의 제품을
접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국내에 선
보여 당시 우수 제과점에 포장용기
를 납품, 빠르게 시장을 확보해 왔다.

“일본에서 미려하고 위생적이며 기능
을 갖춘 식품용기를 접하고 단순한 형태
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제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식품포장은 ‘간접식품’
으로 인간의 인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의 여건이 뒤따
라 주지 못해 등한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



▶ 대전팩케지 연천공
장 플라스틱 성형
용기 생산라인



◀ 대건은 올해 블리스터 포장용도로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다”라고 피력하는 맹 사장은 기업 발전의 원동력은 역시 ‘개발과 투자’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구로구 독산동 공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비교적 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맹 사장은 밝혔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내 기술을 하나의 건축물로 비교할 때 기초공사의 부실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먹구구식의 제품생산 방식을 유지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남다른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와 노력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맹 사장은 이미 15년전 성형용기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형 제조기기를 독일에서 수입하여 앞선 시도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설비가격이 3천만원으로 집 세채를 구입할 수 있는 액수였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맹 사장의 과감한 투자를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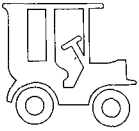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맹 사장의 과감한 투자가 다시 우수한 제품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유저의

신임을 얻어 매출과 직결되고 있다.

“현재 저희 대건이 보유하고 있는 금형을 금액으로 보면 30억원에 이릅니다. 시대에 앞선 시도였는지 몰라도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평소 소신을 밝히는 맹 사장은 전문인력이 특히 부재한 국내 실정상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해 나름대로의 사업 구상 중에 있다.

즉 5년안에 이 분야의 전문학원을 설립하고 인력양성에 나설 것과 대건의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형에 대한 기술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 2001년부터 기초작업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화시대에 이르러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체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우리의 경쟁대상인 외국회사는 원자재가격은 우리에게 비해 높아 불리한 면도 있지만 생산성이 10배이상 높고 로스율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어 경쟁에서 우



리가 불리합니다”라고 안타까워 하는 맹 사장은 지난 해 IMF를 맞은 많은 유저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대건도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지만 96년 11월부터 이것에 착실히 대비, 준비를 해두어 다행히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는 80~90%가 PVC재질로 생산되었는데 몇 년전 부터 PET재질의 제품이 조금씩 선보이기 시작 하면서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87년 유럽에서 PVC규제에 대해 처음 접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맹 사장은 국내에 돌아와 이 부분을 알리고 대기업체에서 미리 준비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역시 시기 상조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그후 일본에서도 90년초반부터 PVC규제가 거론되고 PET식품용기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3년 전부터

사용이 눈에 띄면서 최근 그 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식품용기로서는 PET재질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며 대건팩케지도 10년전부터 준비해와 전 품목의 80%를 PET로 전환했고 올해 100% 바꿀 계획이라는 맹 사장은 다만 생산성면에서 PET가 기존 PVC에 비해 50%정도 떨어지는 단점과 PET전용 슬리터를 필요로 하는 단점 등 후처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내에 더욱 빠른 속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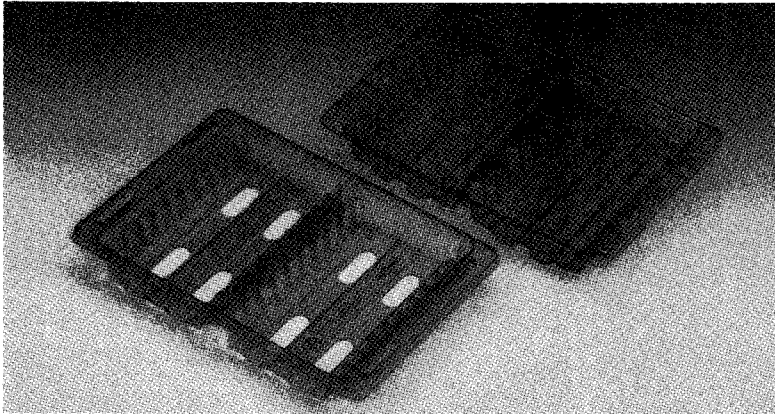
현재 경기도 연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건팩케지는 플라스틱성형사업부와 금형사업부, 반도체사업부, 화학사업부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금형사업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형을 제작하여 독일 등지로 올해부터 수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반도체사업부는 반도체용, 블리스터용 포장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화학사업부는 최근 5억원을 투자하여 대



▶ 최근 대건은 주생 산품인 재파점용 포장용기를 PET시트 로 전환하고 있다.



◀ 대건이 주력 공급하게 될 반도체 포장용 트레이는 생산성 최대화, 정전기 방지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과 산학협동으로 로스부분을 원료로 환원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은 건축용 도료, 페인트원료, 폴리머 콘크리트 제품 등 지금까지 폐기처리되어 오던 PET의 로스부분을 원료화시킬 수 있어 PET의 많은 양을 자원화 하는데 기여할 뿐만아니라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대건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건은 이 기술의 개발과 함께 98년 6월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미 91년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를 새로운 사업개시와 함께 발전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나름대로의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맹 사장은 반도체 포장용 트레이의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인데 이 제품은 정전기에 민감한 장치들을 위한 정전기 산일 및 전도성의 열성형보호 포장재로 생산성을 최대화하고 조립, 선적시 경비가 비싸게 드는 재작업, 보수 또는 핸들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건 연구실의 기초 금형디자인과 설계,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금형제품은 최

첨단 CNC가공을 통해 어떤 형태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플라스틱용기를 환경오염으로 보아 규제하려는 등의 모순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면을 고려하고 업체들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산업계 전체를 염두에 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단순히 한 산업계를 말살하고 반대산업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맹 사장은 밝혔다.

또한 단순히 소비자에게도 플라스틱이 나쁘다는 것을 홍보하고 사용을 자제시킬 것이 아니라 재활용한다면 좋은 자원이므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업 발전이 경영자의 마인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여건상 경영자들이 단순히 이윤추구라는 결론을 쫓기 보다는 산업계 발전과 크게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을 펼쳐야 할 것이다. ☐

이선하 기자